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안긴문장이 없는 것은?

- ① 나는 동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고대한다.
- ② 착한 영호는 언제나 친구들을 잘 도와준다.
- ③ 해진이는 울산에 살고 초희는 광주에 산다.
- ④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일 가족 여행을 가자고 말씀하셨다.

2. 밑줄 친 부분이 바르게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지금쯤 골아떨어졌겠지?
- ② 그 친구, 생각이 깊던데 책깨나 읽었겠어.
- ③ 갖은 곤욕과 모멸과 박대는 각오한 바이다.
- ④ 김 과장은 그러고 나서 서류를 보완해 달라고 했다.

3.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자연스러운 것은?

- ①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우리가 고유 언어를 가졌다.
- ② 좋은 사람과 대화하며 함께한 일은 즐거운 시간이었다.
- ③ 내 생각은 집을 사서 이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했다.
- ④ 그는 내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였다.

4. ㉠~㉢의 고쳐 쓰기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공사하는 기간 동안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 ㉡ 오늘 오후에 팀 전체가 모여 회의를 갖겠습니다.
- ㉢ 비상문이 열려져 있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
- ㉣ 지난밤 경찰은 그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 ① ㉠: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되므로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공사하는 동안'으로 고쳐 쓴다.
- ② ㉡: '회의를 갖겠습니다'는 번역 투이므로 '회의하겠습니다'로 고쳐 쓴다.
- ③ ㉢: '열려져'는 '-리-'와 '-어지다'가 결합한 이중 피동 표현이므로 '열려'로 고쳐 쓴다.
- ④ ㉣: 동작의 대상에게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는 의미를 제시해야 하므로 '구속했다'는 '구속시켰다'로 고쳐 쓴다.

5. ㉠~㉢을 사전에 올릴 때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로 적절한 것은?

㉠ 굶 ㉡ 규탄 ㉢ 곳간 ㉣ 광명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6. 밑줄 친 말의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 년 얼마나 오지랖이 넓기에 남의 일에 그렇게 미주알고주알 캐는 거냐?
- 강쇠네는 입이 재고 무슨 일이나 오지랖이 넓었지만, 무작정 덩벼거리고만 다니는 새줄랑이는 아니었다.

- ① 謁見
- ② 干涉
- ③ 參見
- ④ 干與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 온 일은 다섯 가지이다. 채권 매매, 칼 갈기,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이다. 이 일들만 해 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다. 서커스단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꼬추 한 사람을 데리고 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들었다. 우리들도 아버지를 성토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물러섰다. 꼬추는 멍하니 앉아 우리를 보았다. 꼬추는 눈물이 핑 돌아 돌아갔다. 그의 뒷모습은 아주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의 꿈은 깨어졌다.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갔다.

... (중략) ...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소 제본 공장에 나가 접지 일을 했다. 고무 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접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부 조역으로 출발했다. 땀을 흘리지 않고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영호와 영희도 몇 달 간격을 두고 학교를 그만두었다. 마음이 차라리 편해졌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구역 안에서 보호를 받듯이 우리도 이질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조역, 공목,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영호는 인쇄에서 일했다. 나는 우리가 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싫었다. 영호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영호는 먼저 철공소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을 했다. 가구 공장에서도 일했다. 그 공장에 가 일하는 영호를 보았다. 뽀얀 톱밥 먼지와 소음 속에서 서 있는 작은 영호를 보고 나는 그만두라고 했다. 인쇄 공장의 소음도 무서운 것이었으나 그곳에는 톱밥 먼지가 없었다. 우리는 죽어라 하고 일했다. 우리의 팔목은 공장 안에서 굶어 갔다. 영희는 그때 큰길가 슈퍼마켓 한쪽에 자리 잡은 빵집에서 일했다. 우리가 고맙게 생각한 것은 환경이 깨끗하다는 것 하나뿐이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1. 다음 대화에서 '정민'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수: 요즘 짝궁이랑 사이가 별로야.  
정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상수: 그 애가 내 일에 자꾸 끼어들어. 사물함 정리부터 내 걸음 걸이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잖아.  
정민: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짝궁한테 그런 말을 해 보지 그랬어.  
상수: 해 봤지. 하지만 그때뿐이야. 아마 나를 자기 동생처럼 여기나 봐.  
정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작년의 내 짝궁도 나한테 무척이나 심했거든. 자꾸 끼어들어서 너무 힘들었어. 네 얘기를 들으니 그때가 다시 생각난다. 그런데 생각을 바꿔 보니 그게 관심이다 싶더라고. 그랬더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 그리고 짝궁과 솔직하게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애도 자신의 잘못된 점을 고치더라고.  
상수: 너도 그랬구나. 나도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고, 짝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 봐야겠어.

- 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용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 ②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방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약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경청하면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다.

12. 다음에서 제시한 글의 전개 방식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과'는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는 전개 방식이다. 어떤 현상이나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나 힘을 제시하고 그로 말미암아 초래된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 방식이다.

- ① 온실 효과로 지구의 기온이 상승할 때 가장 심각한 영향은 해수면의 상승이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변화시켜 엄청난 기후 변화를 유발하며, 게다가 섬나라나 저지대는 온통 물에 잠기게 된다.
- ② 이 사회의 경제는 모두가 제로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섬(zero-sum)이란 어떤 수를 합해서 제로가 된다는 뜻이다. 어떤 운동 경기를 한다고 할 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 ③ 다음날도 찬호는 학교 담을 따라 돌았다. 그리고 고무신을 벗어난 손에 한 짝씩 쥐고는 고양이 걸음으로 보초의 뒤를 빠져 팽이처럼 교문 안으로 뛰어 들었다.
- ④ 벼랑 아래는 뾰뾰한 소나무 숲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새털구름이 흩어진 하늘 아래 저 멀리 논과 밭, 강을 선물 세트처럼 끼고 들어앉은 소읍의 전경은 적막해 보였다.

13. 다음 진행자 'A'의 대화 진행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지방 자치 단체가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자 한 분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B: 네, 안녕하세요.  
A: 의약품 공급 정보망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한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B: 네, 약국이나 제약 회사가 의약품을 저희에게 기탁하면, 이 약품을 필요한 사회 복지 시설이나 국내외 의료 봉사 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입니다.  
A: 그렇군요. 그동안 이 사업에 성과가 있었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B: 그렇습니다. 약국이나 제약 회사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의약품을 기탁하고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복지 시설이나 봉사 단체에서는 필요한 의약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A: 그렇군요. 혹시 이 사업에 걸림돌은 없나요?  
B: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구하면 주는 방식이어서 전문 의약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방전 발급을 부탁할 수도 없고…….  
A: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정비나 의료 전문가의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B: 그건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기부하실 때나 받으실 때나 모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 네, 간편해서 좋군요. 모쪼록 이 의약품 공급 정보망 사업이 확대되어 국내외 의료 취약 계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①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인다.
- ② 상대방의 대답에서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한다.
- ③ 대화의 화제가 된 일을 홍보할 수 있는 대답을 유도한다.
- ④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한다.

14.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용왕의 아들 이목(璃目)은 항상 절 옆의 작은 연못에 있으면서 남몰래 보양(寶壤) 스님의 법화(法化)를 도왔다. 문득 어느 해에 가뭄이 들어 밭의 곡식이 타들어 가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모두 흡족히 여겼다. 하늘의 옥황상제가 장차 하늘의 뜻을 모르고 비를 내렸다 하여 이목을 죽이려 하였다. 이목이 보양 스님에게 위급함을 아뢰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침상 밑에 숨겨 주었다. 잠시 후에 옥황상제가 보낸 천사(天使)가 뜰에 이르러 이목을 내놓으라고 하였다. 보양 스님이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리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용이 쓰다듬자 곧 소생하였다(일설에는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 살아났다고 한다). 그 나무가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선법당(善法堂)과 식당에 두었다. 그 막대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 일연, 『삼국유사』 -

- ① 천사의 벼락을 맞은 배나무는 저절로 소생했다.
- ② 천사는 이목을 죽이려다 실수로 배나무에 벼락을 내렸다.
- ③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씨의 당대까지 전해졌다.
- ④ 제멋대로 비를 내린 보양 스님을 벌하려고 옥황상제가 천사를 보냈다.

15. ㉠에 들어갈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상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ㄴ’과 ‘ㄹ’을 구별하지 못한다. 이들은 ‘증표(證票)’나 ‘정표(情表)’를 구별하여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하기 십상이다. 또 이들은 ‘ㄷ’과 ‘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은 ‘쌀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많이 찼다’고 말하든 ‘쌀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많이 찼다’고 말하든 쉽게 그 차이를 알지 못한다. 한편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에서는 ‘ㄴ’과 ‘ㄹ’을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평안도 사람들의 ‘ㄷ’ 발음은 다른 지역의 ‘ㄷ’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 이처럼 ( ㉠ )

- ① 우리말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
- ② 우리말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표준 발음법이 있다.
- ③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
- ④ 자음보다 모음을 변별하지 못하는 지역이 더 많이 있다.

16. 글의 통일성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 혁신의 상징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이후 글로벌 아이콘이 됐던 소위 스마트폰이 그 진화의 한계에 봉착한 듯하다. 게다가 최근 들어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랜 기간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 왔던 기업들의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다. ( ㉠ )

그렇다면 스마트폰 이후 글로벌 주도 산업은 무엇일까. 첫손가락에 꼽히는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을 뜻하는 ‘팡(FANG)’이다. 모바일 퍼스트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에 눈뜬 기업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매출과 순이익이 크게 늘었으며 주가도 폭등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영속 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 ① 온 국민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여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 ② 정보 기술 업계의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③ 다른 나라의 기업들을 보고 아전인수(我田引水)해야 할 때다.
- ④ 글로벌 위기의 내외환(內憂外患)에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하다.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희극의 발생 조건에 대하여 베르그송은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 등을 꼽았다. 즉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들 중 한 개인에게 그들의 모든 주의가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세 가지 사항은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들이다.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을 들 수 있다. 관객은 이러한 결함을 지닌 인물을 통하여 스스로 자기 우월성을 인식하고 즐거워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의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이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의 웃음이 그 인물에 대하여 우리가 지니는 기분 좋은 우월감을 나타내는 것임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은 시사적이다.

- ① 베르그송에 의하면 희극은 관객의 감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결과이다.
- ② 베르그송에 의하면 집단, 지성, 한 개인의 존재는 희극 발생의 조건이다.
- ③ 한 개인의 신체적·성격적 결함은 집단의 웃음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장치이다.
- ④ 프로이트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정신 활동보다 육체 활동에 힘을 쓰는 상대가 희극적인 존재이다.

18. ㉠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다시 방수액을 부어 완벽을 기하고 이음새 부분은 손가락으로 몇 번씩 문대어 보고 나서야 임 씨는 허리를 일으켰다. 임 씨가 일에 몰두해 있는 동안 그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일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저 열 손가락에 박힌 공이의 대가가 기껏 지하실 단칸방만큼의 생활뿐이라면 좀 너무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솟아오르기도 했다. 목욕탕 일도 그러했지만 이 사람의 손은 특별한 데가 있다는 느낌이였다. 자신이 주무르고 있는 일감에 한치의 틈도 없이 밀착되어 날렵하게 움직이고 있는 임 씨의 열 손가락은 손가락 이상의 그 무엇이였다.

- 양귀자,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

- ①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 아침이면, / 세상은 개벽을 한다.



- ② 산에 / 산에 / 피는 꽃은 /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 꽃이 좋아 / 산에서 / 사노라네.  
③ 남편은 어디에 나가 있는지 / 아침에 소 끌고 산에 올랐는데 / 산 밭을 일구느라 고생을 하며 / 저물도록 돌아오지 못한다네.  
④ 눈을 가만 감으면 굽이 잦은 풀밭 길이, / 개울물 돌돌돌 길썩으로 흘러가고, / 백양 숲 사립을 가린 초집들도 보이구요.

19. 다음 글의 시사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농약과 같은 화학 물질이 몸에 들어와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검토한 연구에서 생리 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 호르몬이 그 물질과 어떤 상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자동차 충돌 사고를 인체 공학적으로 시뮬레이션할 때도 특정 연령대 남성의 몸이 연구 대상으로 사용되었고, 여성의 신체 특성이나 다양한 연령대 남성의 신체적 특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예를 들어 대사율, 피부와 조직 두께 등을 감안한,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온도는 21°C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연구에서 남성과 여성 직장인에게 각각 선호하는 사무실 온도를 조사한 결과는 남성은 평균 22°C, 여성은 평균 25°C였다. 남성은 기존의 적정 실내 온도에 가까운 답을 했고, 여성은 더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C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몸무게 70kg인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이다. 이러한 '표준화된 신체'를 가진 남성의 대사율은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 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

- ① 표준으로 삼은 대상이 나머지 대상의 특성까지 대표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의학적 연구를 하려면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보다 가능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 중에는 특정 표준 대상만을 연구한 결과인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성별이나 연령대 등에 따라 신체 조건이 같지 않으므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기존의 사무실 적정 실내 온도가 조사된 것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 모든 공공 기관의 사무실 온도를 조정할 때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연극에서의 관객의 공감'에 대해 강연한 일이 있다. 나는 관객이 공감하는 것을 직접 보여 주려고 시도했다. 먼저 나는 자원자가 있으면 나와서 배우처럼 읽어 주기를 청했다. 그리고 청중에게는 연극의 관객이 되어 들어 달라고 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다. 나는 그에게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다. 자원자가 종이를 받아들고 그것을 훑어볼 때 청중들은 어수선했다. 그런데 자원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 대사는 끔찍한 내용이었다. 아우슈비츠에 관한 적나라한 증언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청중들은 완전히 압도되었다. 자원자는 청중들의 얼어붙은 듯한 침묵 속에서 낭독을 계속했다. 자원자의 낭독은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관객들의 열렬한 공감을 이끌어 냈다. 과거 역사가 현재의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공감되었다.

이것이 끝나고 이번에는 강연장에 함께 갔던 전문 배우에게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대본은 400년 전 아쟁쿠르 전투(백년 전쟁 당시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의 치열한 전투)에서 처참하게 사망한 자들의 명단과 그 숫자를 나열한 것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의 위대한 희곡임을 알아보자 품위 있고 고풍스럽게 큰 목소리로 낭독했다. 그는 유려한 어조로 전쟁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을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청중들은 듣는 동안 마는 동안 했다. 갈수록 청중들은 낭독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행동했다. 그들에게 아쟁쿠르 전투는 공감할 수 없는 것으로 분리된 것 같아 보였다. 앞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 ①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한다.  
② 비참한 죽음을 다룬 비극적인 소재는 관객의 공감을 일으킨다.  
③ 훌륭한 고전이라고 해서 항상 청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④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을 극화했다고 해서 관객의 공감 가능성이 커지지는 않는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7** ② 현대소설-내용 파악(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아버지는 서커스단의 일을 하고자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아버지의 꿈은 깨어졌다. 즉 가족들의 반대로 새로운 일이 아닌 평생 해 온 일을 하기 위해 무거운 부대를 메고 다시 일을 찾아 나간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글의 앞부분에서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는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글 전체의 내용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 ③ 글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설명에서 '가난'이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④ 글의 '우리는 무슨 일이 있든 공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공부를 하지 않고는 우리 구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문7]출전: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1. 해제: 1976년 <문학과 지성>에 발표된 이 작품은 같은 제목의 연작 12편 중, 네 번째에 해당하는 중편 소설이다. 1970년대 한국 소설이 거둔 중요한 결실로 평가되는 작품으로서 전혀 낙원이 아니고 행복도 없는 '낙원구 행복동'의 소외 계층을 대표하는 '난장이' 일가(一家)의 삶을 통해 화려한 도시 재개발 뒤에 숨은 소시민들의 아픔을 그리고 있다.
2. 핵심 정리
  - 1)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은유적, 우화적
  - 2) 배경: ① 시간 - 1970년대  
② 공간 - 서울의 무허가 판자촌
  - 3) 주제: 삶의 터전을 빼앗긴 도시 빈민의 삶과 좌절

**08** ③ 비문학-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둘째 단락에서 '사물 인터넷이 실현되려면 사람만큼 사물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지능성을 중요시'하는 경우는 그릇된 것이라고 했으므로 '사물 인터넷은 사람 수준의 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소통'한다는 설명은 바르지 않다. 사물들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그들 간에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 사물 인터넷이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사물 인터넷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존 인터넷과의 차이점에 주목하기보다는 오히려 공통점을 인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 ② 첫째 단락의 마지막 '전원이 없었던 일반 사물들은 새롭게 센서와 배터리, 통신 모듈이 부착되면서 컴퓨터가 되고 이렇게 컴퓨터가 된 사물들이 그들 간에 또는 인간의 스마트 기기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이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 ④ 둘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 '컴퓨터를 서로 연결하는 수준에서 출발한 것이 기존의 인터넷이라면, 이제는 사물 각각이 컴퓨터가 되고, 그 사물들이 사람과 손쉽게 닿는 스마트폰, 스마트 워치 등과 서로 소통하는 것이다'는 설명으로 알 수 있다.

**09** ④ 고전문학-한시: 작품 감상

선경후정(先景後情)이란 작품에서 먼저 경치(자연)에 대해 말하고 뒤에서 정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 작품은 정서의 표현이 없이 장면만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 3구와 4구의 내용을 통해 제사를 끝내고 해 저물어 돌아오는 상황을 알 수 있다.
- ② ㉡: 무덤은 산에 있어야 하는데, 들밭의 머리에 무덤들이 즐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정상적으로 매장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읽을 수 있다. 일종의 가매장이었을 것이다. 곧 전쟁(임진왜란)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 ③ ㉢: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통해 무덤의 주인공을 짐작할 수 있다. 할아버지가 술에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손자와 무관하지 않다.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손자, 삼대(三代)가 함께 있어야 했는데, 전쟁으로 아들(손자의 아버지)은 세상을 떠난 것이다.

※[문9]출전: 이달, 「제총요(祭塚謠)」 - 무덤에 제사 지낼 때 소리

전쟁(임진왜란)으로 말미암은 비극성을 고발한 작품인데 전란의 참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듯 한 장면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10** ④ 한자와 한자어-한자 어휘

④ ㉠의 '맹세(盟誓)'는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을 뜻하며, 바르게 쓰였다.

① ㉠ 도전(逃戰)→도전(挑戰)

- 도전(逃戰: 逃도망할 도/戰 싸움 전): (×)
- 도전(挑戰: 挑 돛울(꾀다, 드러내다) 도/戰 싸움 전):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

② ㉡ 지지(持地)→지지(支持)

- 지지(持地: 持 가질 지/地 땅 지): (×)
- 지지(支持: 支 지탱할 지/持 가질 지):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찬동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씬.

③ ㉢ 침묵(浸黙)→침묵(沈默)

- 침묵(浸黙: 浸장길 침/默 묵묵할 묵): (×)
- 침묵(沈默: 沈 잠길 침/默 잠잠할 묵):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음.

④ ㉠ 맹세(盟誓: 盟 맹세 맹/誓 맹세할 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함. 원말인 '맹서'도 표준어이다. 다만 원말인 '맹서'보다는 '맹세'가 더 많이 쓰이고 있다.

**11** ② 비문학-화법: 의사소통 방식

② 정민은 작년의 짝궁이 자꾸 끼어들어서 힘들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해결했던 경험을 말하고, 상수도 짝궁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보라고 도움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④는 모두 정민의 말하기와 관련이 없다.

※'듣기의 원리' 중 '공감적 듣기'

공감적 듣기란 상대방에게 감정을 이입하여 상대의 말을 들어 주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상호 작용이나 정서 표현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소통에서, 청자의 듣기 목적이 화자의 발화 의도를 이해하고 발화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데 있다고 할 때, 이러한 공감적 듣기는 꼭 필요한 수용 태도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2** ① 비문학-글의 전개 방식

①은 인과 관계를 연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원인: 온실 효과: 원인→결과: 지구의 기온이 상승

↓

원인: 지구의 기온이 상승 →결과: 해수면의 상승

↓

원인: 해수면의 상승 → 결과: 바다와 육지의 비율을 변화, 엄청난 기후 변화를 유발, 섬나라나 저지대는 온통 물에 잠기게 된다.

[오답 풀이]

- ② '제로섬(zero-sum)'의 정의
- ③ 서사
- ④ 묘사와 비유(직유법: 선물 세트처럼)

**13** ② 비문학-화법: 대화 진행 전략

진행자 'A'는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하여 B에게 질문을 하여 'B'가 답변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가고 있다. 'B'의 대답에서 모순점을 찾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 ① 'A'는 '그렇군요'. '~말씀인 것 같군요', '네, 간편해서 좋군요' 등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③ 'A'는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한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에 대해 참여 방법을 질문하여 'B'가 홍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의약품 공급 정보망 구축 사업의 걸림돌'에 대한 'B'의 답변을 'A'는 '그러니까~말씀인 것 같군요'라고, 상대방의 말을 대화의 흐름에 맞게 해석하여 상대방의 말을 보충하고 있다.

**14** ③ 비문학-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③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는 바람에 배나무가 꺾어졌는데 곧 소생하고, 그 나무가 근래에 땅에 쓰러지자 어떤 이가 빗장 막대기로 만들어 두었다. 따라서 벼락 맞은 배나무로 만든 막대기가 글쓴이의 당대까지 전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리고, 용이 쓰다듬자, 일설에는 보양 스님이 주문을 외워 곧 소생하였다.
- ② 천사(天使)가 이목(璠目)을 내놓으라고 하자 보양 스님이 뜰 앞의 배나무[梨木]를 가리키자 천사가 배나무에 벼락을 내린 것이다. 즉 실수로 벼락을 내린 것이 아니다. 보양 스님은 발음은 '이목'으로 같지만 한자가 다른 배나무가 이목이라고 가리키자 배나무에 벼락을 내린 것이다.
- ④ 이목이 제멋대로 비를 내린 것이 아니며, 보양 스님을 벌하려는 것도 아니다. 가뭄이 들어 밭의 곡식이 타들어 가자 보양 스님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황상제가 장차 하늘의 뜻을 모르고 이목을 죽이려 한 것이다.

**15** ③ 비문학-주제 찾기 유형

경상 지역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ㄴ'와 'ㄹ'을 구별하지 못하고, 평안도 및 전라도와 경상도의 일부에서는 'ㄱ'과 'ㄴ'을 제대로 분별해서 발음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평안도 사람들의 'ㅈ' 발음은 다른 지역의 'ㄷ' 발음과 매우 비슷하다는 내용이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말에는 지역에

따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지역마다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지 않는 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 ② 지역에 따른 다양한 표준 발음법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다.
- ④ 제시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6** ② 비문학-글의 통일성과 적절한 한자성어

첫째 단락에서는 화려하게 등장한 스마트 폰이 한계에 봉착한 듯하고, 스마트 스마트폰 생산량의 수위를 지켜 왔던 기업들의 호시절도 끝난 분위기라고 하였다. 그리고 둘째 단락에서는 스마트폰 이후 글로벌 주도 산업도 영속 불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따라서 '영화(榮華)는 일시적이어서 계속되지 않음'을 뜻하는 ②의 '권불십년(權不十年)'이 적절하다.

- ① 절치부심(切齒腐心: 切 끊을 절/齒 이 치/腐 썩을 부/心 마음 심)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는 뜻으로, 대단히 분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 ② 권불십년(權不十年: 權 권세 권/不 아닐 불/+ 열 십/年 해 년) 권세(權勢)는 10년을 넘지 못한다는 뜻으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고 늘 변함. 또는 영화(榮華)는 일시적이어서 계속되지 않음.
- ③ 아전인수(我田引水: 我 나 아/田 밭 전/引 끌 인/水 물 수) 자기 논에만 물을 끌어놓는다는 뜻으로, ㉠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함.
- ㉡ 또는 억지로 자기에게 이롭도록 꾀함을 이르는 말.

[속] 제 눈에 물대기

- ④ 내우외환(內憂外患: 內 안 내/憂 근심 우/外 바깥 외/患 근심 환) 나라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

**17** ① 비문학-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단락의 앞부분에서 베르그송은 '집단으로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감성을 침묵하게 하고 지성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들 중 한 개인에게 그들의 모든 주의를 집중되도록 할 때 희극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은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오답 풀이]

-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이다.
- ③ 단락의 내용 중 '웃음을 유발하는 단순한 형태의 직접적인 장치는 대상의 신체적인 결함이나 성격적인 결함'이라고 설명하였다.
- ④ 끝부분에서 "한 인물이 우리에게 희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 자신과 비교해서 그 인물이 육체의 활동에는 많은 힘을 소비하면서 정신의 활동에는 힘을 쓰지 않는 경우이다.~"라는 프로이트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18** ③ 현대소설-인물의 정서

임 씨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가난한 임 씨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③은 김창협(金昌協)의 「산민(山民)」으로서, 산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부부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드러난다.

[오답 풀이]

- ①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어둠이 사라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아침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김소월의 「산유화」: 산에 피고 지는 꽃을 소재로 하여, 인간과 자연, 모든 존재에 스며있는 근원적 고통을 노래하고 있다.
- ④ 김상옥의 「사향(思鄕)」: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7월 11일 국가직 9급 국어



2020. 07. 11.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9 ④ 비문학-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셋째 단락에서,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C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 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보다 설정 온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성별이나 연령대 등을 고려해서 조정해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둘째 단락에서, 특정 연령대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화된 인체로 여겼던 사고방식은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했으므로 하나의 표준을 정하기보다 가능한 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첫째 단락에서, 기존의 의학적 연구는 건장한 성인 남성의 몸을 표준으로 삼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고, 셋째 단락에서는 현재 적정 사무실 온도로 알려진 21°C는 1960년대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 몸무게 70kg인 40세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측정된 것으로 현대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에게는 맞지 않다. 따라서 이런 의학 지식을 활용하려면 연구한 대상을 살펴봐서 그대로 활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셋째 단락에서, 여성이나 다른 연령대 남성들의 대사율과 다르고, 당연히 체내 열 생산의 양도 차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근무 환경을 조성할 때 근무자들의 성별이나 연령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 ③ 비문학-내용 일치/불일치 유형

둘째 단락의 내용을 보면, 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5세」에서 발췌한 대사를 낭독할 때 청중들은 듣는 동안 마는 동안 했다. 따라서 ③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에서의 경우 자원자의 낭독은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았지만 청중들은 공감했고, 둘째 단락에서의 경우 전문 배우가 낭독했으나 청중은 공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배우의 연기력이 관객의 공감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첫째 단락에서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비극은 청중이 공감을 했으나, 둘째 단락에서 아쟁쿠르 전투에서 처참한 비극에는 청중들이 공감하지 못했다. 따라서 비극적인 소재가 관객의 공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 ④ 400년 전 아쟁쿠르 전투보다 현재와 가까운 역사적 사실인 아우슈비츠를 소재로 한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 청중들이 공감을 했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